



한기주



한승혁

한기주·한승혁 “光속구 지켜보라”

日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2012년 강속구를 앞세운 한기주·한승혁 ‘강한’ 듀오가 뜬다.

150km를 던지는 투수가 즐비한 KIA 타이거즈는 ‘강속구 군단’으로 통한다. ‘강속구 군단’의 최고 레이스는 155km가 넘는 공을 뿌린 한기주, 막내는 2년차 한승혁이다.

두 강속구와 한씨 선수는 짧은 팔이다. 186cm의 한기주와 한승혁은 각각 동상고와 덕수고 시절 강속구로 이름을 알리며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았던 특급 선수. 팀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느라 팔꿈치 통증을 안고 프로에 입단한 것도 많았다.

결국 한기주는 2009시즌이 끝나고 수술대에 올랐고, 한승혁은 2011년 입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여파로 한기주는 지난해 캠프에서 나홀로 캠프를 했고 한승혁은 재활군에서 씩씩한 겨울을 보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두 선수에게 특별하고 또 중요하다.

지난 여름 마운드에 복귀한 한기주는 에리조나 캠프에서 팔꿈치 통증이 재발해 휴역을 치렀다. 계속된 부상으로 속살이를 한 한기주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학창시절부터 사용한 백범비(10번) 교체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기주는 “잘 던지다가 통증이 와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공동묘지에 가서 손가락·팔꿈치를 다 가져오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계속 아프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으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다행히 지금은



파이팅을 외치는 KIA 한승혁(왼쪽)과 한기주.

고교때 빅리그 러브콜 받은 강속구 투수들 부상아픔 딛고 ‘팀우승’ ‘신인왕’ 목표 다짐

통증 없이 시즌 준비 잘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스케줄 소화하면서 하프 피칭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급 선수에서 부상병으로 추락하며 마음 고생을 했던 만큼 한승혁은 특별히 쟁쟁하고 싶은 후배다.

한기주는 “좋은 후배다. 성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나와 비슷한 점도 있어서 더 쟁쟁하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다. 수술했으니까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시즌 준비가 늦어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서는 게 한기주의 목표.

한기주는 “아파서 준비를 많이 못한 만큼 보직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른 목표는 없다. 시즌 끝날 때까지 선배들과 함께 하면서 팀 승리를 돕는 게 내 역할이고 목표다”고 말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배구스타 출신인 한창석 전 대한항공 감독의 아들로 유명세를 탔던 한승혁은 앞으로는 자기의 야구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다.

한승혁은 “재활군에만 있다가 1군 선배들과 같이 야구를 하는 게 낫실지도 모르지만 공을 만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캠프에서 처음 피칭을 할 때는 거의 2년 만에 공을 던진 거라서 큰 무대에 선 것처럼 많이 긴장했다”고 말했다.

제가 1군 합류를 위한 속세지만 연습경기에서 벌써 149km를 뿌렸다.

욕심 많은 한승혁은 캠프에서 욕심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기주는 욕심 버리는 법을 알려주는 특별한 선배다.

한승혁은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다. 마음에 안 차면 할 때까지 하는 성격인데 앞으로 더 멀리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천천히 준비하자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며 “(한)기주형이 먼저 팔꿈치 수술과 재활 과정을 겪어봤으니까 믿고 따르고 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자신감도 심어주는 든직한 선배다”고 얘기했다.

아프지 않은 게 우선 목표인 한승혁은 1군에서 자리 잡은 뒤 신인왕이라는 고지를 향해 달려겠다는 계획이다.

/ wool@kwangju.co.kr

SUN, 부드러운 카리스마



“괜찮아”



“뚝바로!”



“속타네”



“잘했어”



“자세는 이렇게”

KIA 스포츠클럽에서 투수들에게 자세를 설명하는 선동열 감독.

KIA 선동열 감독이 명가재건을 위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택했다.

5일 한화와의 연습경기가 끝난 후 KIA 덕아웃에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2일 한화를 상대로 노히트노런 패를 당한데 이어 이날은 10개의 안타를 때려내고도 1-2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2일 경기 직후에는 선동열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제대로 컨디션 관리 못할 경우 365일 훈련도 불사하겠다’는 호통 속에 구보로 속소까지 이동을 했던 터라 노히트노런에 이어 한화에게 역전패를 기록한 선수들은 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선 감독은 “나한테 잘 보

“즐기며 야구하라” 자유롭게 훈련 컨디션 관리 못한 선수엔 불호령

이기 위해 뛰지 말라.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데 즐기면서 야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치며 자리를 떴다.

감독의 한 마디에 덕아웃의 긴장감도 이내 풀려났다.

선 감독이 카리스마에 부드러운 말을 더해 선수단을 이끌어 나가면서 캠프 분위기는 최상이다.

선수들은 어느해보다 긴 캠프에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밝은 분위기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선 감독이 취임과 함께 팀 워크와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스스럼없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전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선 감독도 직접 나서서 훈련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코칭스태프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수들이 편하게 훈련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켜보는 편이다.

친철필리아와 야구용품 선물로 선수단 기살리가 작전을 펴는 것은 물론 노히트노런패 후 선수들과 함께

뛰는 등 술선수범까지 하고 있다. 미팅 장면에도 변화가 생겼다. 경기가 끝나면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이 동그렇게 서서 미팅을 하는 게 흔한 장면이다.

하지만 KIA 캠프의 미팅은 다르다.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덕아웃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코칭스태프가 덕아웃 밖에 도열한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그라운드에서 서서 경기를 정리하고, 선수들은 편하게 앉아서 코칭스태프의 얘기를 듣는 것이다.

타이거즈 명가 재건을 위해 엄습한 대신 부드러운 선동열 감독의 2012년이 오키나와에서 무리 없이 가고 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LPGA 회장에 구자용씨 “여자골프 위상 제고 최선”



구자용(57) LS네트웍스 회장이 한국 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제12대 회장에 추대됐다.

KLPGA는 최근 이사회와 대의원 설명회를 차례로 열어

구자용 회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2016년 정기총회까지 협회를 이끌게 된 구자용 회장은 “한국 여자골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이뤄 협회 안정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S네트웍스는 프로스펙스와 풋웨어 스케치스, 아웃도어 몽벨 및 잭폴스킨 브랜드를 보유한 스포츠·아웃도어 유통기업이다.

구 회장은 9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LPGA 정기총회 직후 취임식을 한다.

KLPGA 10대 회장인 선종구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사퇴했고 4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구옥희 전 회장이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 임시총회가 권한이 없는 사람들 의해 소집돼 하자 있었다는 7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장단 직무집행이 정지돼 지금까지 김대식 변호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 연합뉴스

매길로이·우즈 ‘신·구 황제’ 맞대결

남자프로골프 ‘신·구 황제’가 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총상금 850만 달러)에서 다시 맞붙는다.

5일 자 세계랭킹에서 생애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른 로리 매길로이(23·북아일랜드)와 메이저 대회에서만 14승을 거둔 타이거 우즈(37·미국)가 2주 연속 같은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럴 골프장 블루몬스터 TPC(파72·7천334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유럽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아시아투어, 남아공 선수인투어, 호주 PGA 투어 등 세계 주요 골프 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골프챔피언십으로, 내로라하는 톱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세계 랭킹 50위 이내 선수들이 빠짐없이

나오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 74명이 컷 탈락 없이 나흘간 승부를 펼친다.

4일 끝난 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매길로이는 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우즈는 4라운드에서 8언더파 62타를 쳐 공동 2위까지 치고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둘은 동반 라운드를 펼치지 않았지만 최근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캐딜락 챔피언십… 세계 정상급 74명 4R 승부 한국선수 최경주·양용은·배상문·김경태 출전

마지막 날 우승을 놓고 정면 대결할 가능성도 있다.

매길로이와 우즈는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십 1,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했다.

당시 둘은 2라운드까지 나란히 5언더파 139타를 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둘은 8언더파 280

타,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매길로이와 우즈를 우승 후보 1,2위로 꼽았다.

매길로이는 최근 출전한 12차례 대회 가운데 11번이나 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우즈는 이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세 차례 정상에 오른 경력이 돋보인다.

특히 우즈는 블루 몬스터에서 열린 대회에 8차례 출전해 모두 10위 이상의 성적을

/ 연합뉴스